

반유대주의와 《요한수난곡》의 균중합창 - 요한과 루터를 중심으로 - 1)

이가영

1. 들어가면서

우리 문화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반셈주의(*anti-Semitism*)를 추적해나가면서 나는 어둡고 밝은 면모를 모두 남긴 기독교 교리에 바탕을 둔 작품이 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고전음악 목록은 바흐의 《요한수난곡》부터 스트라빈스키의 《칸타타》에까지 이어진다.²⁾

위 인용구는 미국의 음악학자, 리처드 타루스킨(Richard Taruskin, 1945-)의 1995년 저서, 『텍스트와 구현』(*Text & Act: Essays on Music and Performance*)에서 발췌된 것이다. 타루

1) 이 논문은 2016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Richard Taruskin, *Text & Act: Essays on Music and Perform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358. 타루스킨이 이 저서에서 사용한 용어, 반셈주의(*anti-Semitism*)는 유대인이라는 민족, 또는 인종을 차별하고 증오하는 태도, 이념, 현상 등을 함의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이 용어는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신념과 이것의 실행을 구별하고 증오하는 반유대주의(*anti-Judaism*)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루스킨이 반셈주의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적대감의 ‘모든’ 형태를 표시하는 신화적 개념”으로 읽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용환, “바그너의 반유대주의 I: 원인과 배경,” 『서양음악학』 39 (2014), 46, 각주 2를 참조하라. 그러나 본고는 반셈주의가 아닌 반유대주의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이것은 바흐담론의 관습을 따른 것이기도 하다). 반셈주의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에 의해 19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기획’된 유대 민족 또는 인종에 대한 차별과 증오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구에서 이루어진 《요한수난곡》과 반유대주의 문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헌은 Michael Marissen, *Lutheranism, Anti-Judaism, and Bach's St. John Pas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과 *Bach & G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등이다; 국내에서 바흐를 포함한 서구 작곡가의 반유대주의(또는 반셈주의)를 논의하는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된 국내 문헌은 위에서 언급한 김용환의 논문, “바그너의 반유대주의 I,” 45-81을 참고하라.

스킨은 기독교 교리에 바탕을 둔 작품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반셈주의를 강화해 나갔는지, 그리고 왜 바흐의 《요한수난곡》과 스트라빈스키의 《칸타타》가 이러한 작품목록에 속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타루스킨이 남긴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특별히 이 글의 관심은 바흐의 《요한수난곡》과 반셈주의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미 동양과 서양의 콘서트홀이 제공하는 영속적인 레퍼토리의 일부에 편입된 《요한수난곡》은 (이러한 이유로 타루스킨은 이 작품을 ‘고전’이라는 범주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본래 성금요일(Good Friday)을 기념하는 루터교 저녁예배를 위해 작곡된 전례음악이다. 이 작품의 가사는 예수의 수난내러티브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서 18장 1절부터 19장 43절까지의 성서구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구절들은 내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복음사가(Evangelist), 예수, 베드로, 빌라도, 군중 등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레치타티보와 합창의 형식으로 노래된다.³⁾ 그러나 《요한수난곡》의 가사가 성서구절의 인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성서구절 사이사이에 아리아와 정통루터교의 코랄 등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형식의 아리아와 코랄은 선행하는 수난내러티브의 신학적 의미를 묵상한다. 물론, 오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아리아와 코랄에 의해 진행되는 내러티브는 잠시 중단되고, 이 멈추어진 시간 안에서 청중은 신학적인 성찰과 반성을 경험한다.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흐의 《요한수난곡》은 요한복음서의 기자인 요한의 글쓰기와 정통루터교의 신학언어와 18세기 초반 독일이라는 당대 시각,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흐라는 작곡가의 음악적

3) 《요한수난곡》은 요한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난내러티브가 변형 없이 그대로 차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18세기 전반부 독일에서 유행하던 수난오라토리오(Passion Oratorio)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수난오라토리오는 성서 가사가 작사가에 의해 변형된 형태로 등장한다. 당대 작곡가들, 예컨대 헨델, 마태존, 텔레만 등은 수난오라토리오를 선호하였지만, 유독 바흐는 오라토리오수난곡(Oratorio Passion)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바흐는 그리 하였는지 남아 있는 문헌자료는 말해주지 않는다. 《요한수난곡》의 장르적인 특징, 가사, 그리고 신학에 관한 입문을 위해서 이가영, “바흐의 《요한수난곡》 입문: 요한의 기록, 루터의 신학, 그리고 바흐의 해석,” 『음악이론연구』 22/1 (2014), 41-64를 참고하라. 《요한수난곡》을 다루는 해외문헌은 풍성하다. Alfred Dürr, *Johann Sebastian Bach's St. John Passion: Genesis, Transmission, and Mea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Daniel R. Melamed, *Hearing Bach's Pass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John Butt, *Bach's Dialogue with Modernity: Perspectives on the Pass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Eric Chafe, *J. S. Bach's Johannine Theology: The St. John Passion and the Cantatas for Spring 172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등을 참고하라.

4)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한수난곡》의 가사는 새롭게 창작된 ‘그 무엇’은 아니다. 오히려 이 가사는 누군가에 의해 ‘편찬된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옳다. 《마태수난곡》과는 달리 《요한수난곡》의 가사는 누구에 의해 편찬되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일부의 바흐학자들은 작곡가가 이 작품의 가사편찬에 참여하였으리라 가정하고 있다. Don O. Franklin, “The Libretto of Bach's John Passion and the Doctrine of Reconciliation: An Historical Perspective,” in *Das Blut Jesu und die Lehre von der Versöhnung im Werk Johann Sebastian Bachs*, ed. Albert A. Clement (Amsterdam: North-Holland, 1995), 179-203.

구현이 각각의 결을 이루며 다성적인 방식으로 신학적, 음악적,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만들어나가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목소리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의미는, 또는 성격규정은 각 층위에 관한 이해와 각각의 층위가 서로 어떻게 반응하고, 연계되는지, 그리하여 서로의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풍성하게 하거나 또는 축소시키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이것이 이 글이 추구하는 지향점이기도 하다.

《요한수난곡》에 등장하는 수난내러티브는 예수의 체포, 심문, 수난, 죽음, 장례의 순서를 따른다. 바흐의 또 다른 수난곡인 《마태수난곡》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요한수난곡》은 내러티브의 서술방식이 이후 수난곡과 다르다. 다름의 가장 큰 이유는 예수의 체포, 심문, 사형 장면이 예수, 빌라도, 그리고 이들 사이에 위치해 있는 ‘군중’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있다. 《요한수난곡》의 재판 장면이 《마태수난곡》의 그것보다 더욱더 ‘극적’으로 읽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들의 대화에 등장하는 군중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대신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집요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수난내러티브가 예수의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이들의 요구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거칠고, 거세다. 그리하여 청중의 입장, 또는 음악학자의 입장에서 《요한수난곡》에 진지하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과연 이 군중은 누구인지 질문하게 된다. 타루스킨 역시 이와 유사한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이 군중이 누구인지 궁금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요한복음서의 기자가 이들을 ‘유대인들’로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타루스킨도 이 점에 주목했을 것이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십자가형을 요구하고, 폭력적으로 느껴질 만큼 집요하게 예수를 죄인으로 규정하며, 결국 빌라도로 하여금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하는 바로 이 군중을 복음서의 기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대인들’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요한수난곡》에 등장하는 군중은 누구인가의 문제는 이들은 유대인들인가, 요한기자는 어떠한 의미로 ‘유대인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요한기자는 예수의 죽음에 관한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인가 등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이 일련의 질문들은 요한복음서는 결국 반유대주의를 표방하는가, 확산하는가, 강화하는가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또한, 요한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정체성과 역할의 문제는 바흐가 작곡한 음악작품, 《요한수난곡》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정체성과 역할의 문제와 동일한 것인가도 질문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비록 이 작품의 가사가 요한복음서의 수난내러티브에 엄격하게 기대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리하여 복음서 기자의 태도와 입장이 가사에 뿌리내리고 있지만, 다층적인 가사구조를 가진

《요한수난곡》을 요한기자의 입장에서만 고려한다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이다. 《요한수난곡》의 언어가 부분적으로 정통루터교에 기대고 있음을 기억할 때 과연, 루터의 신학은 수난사에 등장하는 유대인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하다는 뜻이다.

이 글은 반유대주의와 《요한수난곡》의 관계를 이 음악작품에 등장하는 군중합창의 역할과 신학적, 음악적 의미를 통해 조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바흐의 작품, 《요한수난곡》으로 돌아가 군중합창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신학적 맥락에서 등장하는지 규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이 글은 요한복음서와 루터의 기록에서 발견되는 유대인과 관련된 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펼쳐졌는지 1·2차 문헌을 중심으로 추적해 나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흐의 《요한수난곡》 안에서 군중합창의 의미를 질문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요한수난곡》은 반유대주의를 표방하는 작품인가라는 거친 질문의 최종적인 답을 바흐의 ‘음악’ 안에서 제시해 보겠다는 뜻이다.

2. 《요한수난곡》과 군중합창 그리고 요한과 루터의 유대인들

아래 (표 1)은 《요한수난곡》의 수난내러티브에 등장하는 군중합창을 그것의 가사, 짜임새, 조성 등의 특징에 따라 요약한 것이다.

(표 1)

악장/주제	가사	요한복음서 중	조성	짜임새	대칭 관계
18b/유대인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18장 40절	d minor	호모포니	21b
21b/로마의 군인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19장 3절	B flat major	폴리포니 + 호모포니	18b/25 b
21d/대제사장들과 그 하속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9장 6절	g minor	폴리포니	23d
21f/유대인들	우리에게 범이 있 으니 그 범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19장 7절	f major(에서 d minor)	폴리포니	23b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 이다				
22	하나님의 아들, 당 신의 감금이	코랄약장	e major		핵심구조의 중심 약장
23b/유대인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 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 이다	19장 12절	e major(에서 c sharp minor)	폴리포니	21f
23d/저희(유대인 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 가에 못 박게 하 소서	19장 15절	fsharp minor	폴리포니	21d
23f/대제사장들	가이사 이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 나이다	19장 15절	b minor	호모포니	25b
25b/유대인의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 의 왕이라 쓰라	19장 21절	B flat major	호모포니	23f

수난내러티브에서 ‘유대인들’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은 18장, 31절이다. ‘저희’라고 지칭되는 일군의 무리가 재판관을 위해 예수를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간다. 복음서 기사는 31절에서 이들을 ‘유대인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순간부터 유대인들은, 또는 군중들은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재판관을 위해 빌라도를 찾아왔지만, 로마의 총독이 거하는 관정에 선뜻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의 인식일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특별히 관정 외부에 있던 군중이 예수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는 지점은 요한복음 18장, 40절부터이다(21b약장). 복음서에 ‘유대인들’이라 적시된 이 군중은 빌라도에게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요구한다.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왕, 즉 유대인의 왕(*the king of the Jews*)을 석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아우성은 더 커졌다. 요한기자에 따르면 예수가 석방될 수도 있었던 기회, 그리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기회를 유대인들은 부여잡을 뜻이 없었다는 말이다. 이후 이 유대인들의 언어는 더욱더 직설적으로 변해나간다.

그러나 빌라도는 아직 예수의 죄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관정 밖에 머물던 군중들은 빌라도와 함께 밖으로 나온 예수를 향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구한다. 이 군중들은 마치 목격자의 형태로 재판에 참여하는 듯하였으나, 그것의 역할을 넘어서서 강력하고 완고하게 예수의 십자가형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21d). 그런데 이 순간의 복음서를 살펴보면, 요한기자는 이 군중을 ‘유대인들’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다만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하속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 관정 밖에는 이 유대관원들 이외의 일반인들이 모여 ‘유대인 군중’을 이루고 있을 터인데, 요한기자는 예수의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군중의 범위를 축소시켜 유대관원과 그들의 하속들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유대관원들과 하속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의 처형을 행하기 머뭇거린다. 그리하여 자신은 여전히 예수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유대인들’이라고 명기된 군중은 예수가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밝힌다.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빌라도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때 ‘유대인들’은 더욱더 소리 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빌라도의 결심을 촉구한다. 빌라도는 다시 한 번 예수를 군중들에게 보여준다. ‘유대인들’이라 명시된 군중은 23b악장에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할 것을 호소한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해 ‘대제사장들’ 즉 유대관원들은 “가이사 이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단언(23f)하고 있다. 이후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다시 한 번 복음서의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패에 ‘나사렛의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를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어로 새겨 넣은 것을 확인한 후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구하는 부분(25b)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무리는 21d 악장에서 예수의 십자가형을 언급한 바로 그 대제사장들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수난내러티브는 관정 밖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의 역할이 예수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예수의 재판이 더욱더 극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그래서 이 재판이 절정에 가까워짐에 따라 이 군중

들은 더욱더 격분한다. 그리고 복음서의 기자는 예수를 처형하고자하는 단호한 의지를 지닌, 분노에 찬, 때로는 예수를 조롱하는, 예수에 대한 적대감을 감추려 들지 않는 이 격앙된 군중들의 태도와 심리를 축소하지도, 또는 감추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바로 이 순간,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한결음만 물러나 바라보면, 새로운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예컨대 이 재판에는 흡사 세 개의 대화 주체, 즉 예수, 빌라도, 군중들(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듯하지만, 예수와 군중들(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군중들은 빌라도에 의해 끌려 나온 예수의 모습을 목격하고, 예수가 아닌 빌라도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유사하게 예수 역시 그의 모든 대화의 대상은 유대인들이 아닌 빌라도이다. 그러니까 이 재판과정은 관정 안과 밖을 오가는 ‘빌라도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다. 또는, 이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내적인 갈등을 겪는 인물은 빌라도이다. 심문을 받는 대상은 물론 예수이지만, 실제로 가장 큰 시험에 당면한 이는 예수가 아닌 빌라도인 것이다.

수난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재판장면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획한 복음서는 요한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것은 공관복음서와 구분되는 요한만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과연 복음서 기자는 자신의 글을 통해 반유대주의를 강화하고 있는지 다시 질문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독특한 글쓰기를 통해 재판에 참여하는 분노에 찬 유대인들이 아니라 조롱과 비접함으로 군중과 예수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빌라도의 모습에 주목하게 된다. 과연 복음서 기자는 빌라도에게 면죄부를 허락하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복음서의 기자는 관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무리들을 ‘유대인들’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필요에 따라 이들을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하속들 등의 용어로 구분하여 지칭하고 있다.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수난내러티브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관정 밖에서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대중 모두가 유대인인지 알기 어렵고, 대제사장들의 외침에는 일반인 유대인들이 참여하였는지, 또는 하지 않고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 복음서 기자가 자신만의 글쓰기 방식을 고수하는 작가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가 굳이 이들을 구분하여 썼다면,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의미하는 바가 그 자체로 모호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서에 반유대주의가 흐르고 있다 단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국내외의 신학자들 역시 요한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용어의 의미파악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재판과정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에 관한 묘사가 적대적인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음서에 내포되어 있는 반유대주의를 단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듯하다. 그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용어가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명료하게, 체계적인 방법으로 특정인들을 적시하는 한정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의미가 유대관원들을 뜻하는 것이라면, 신학자 서동수의 주장, 즉 “요한복음서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반유대주의가 흐르기 때문이 아니라 반유대당국적 입장이 흐르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⁵⁾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서동수는 2008년 발표한 그의 논문에서 요한복음서와 반유대주의의 연관성을 몇 가지 흥미로운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다. 예컨대, 요한복음서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복음서 기자가 제시하는 ‘예수상(想)’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 등이 그것이다. 그는 요한복음서가 반유대주의를 표명하는가의 질문은 곧 예수는 반유대주의자인가의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여겼다. 이 논문의 결론에서 서동수는 예수가 유대인을 바라보던 시각은 중립적이라고 역설한다. 그 이유는 예수의 시각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대상’에게 일관성 있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게 위해 서동수는 요한복음서 15장에 등장하는 포도나무가지 비유를 예시로 제시한다. 이 비유는 유대인들과는 반대 입장에 놓여 있는 제자공동체를 향한 예수의 메시지이다. 서동수는 15장 2절,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신다”라는 부분에 주목하면서, 예수가 특별히 자신의 제자공동체에게 관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⁶⁾ 물론, 제자공동체를 향한 예수의 중립적인 입장은 복음서의 다른 장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요한복음 6장, 61절, 66절, 그리고 17장 32절 등은 제자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예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⁷⁾ 복음서 내부에서 발견되는 제자공동체를 향한 시선이 긍정과 부정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면, 유대인에 대한 평가 역시 그러할 것이다. 서동수의 이러한 논거에 따르면, 요한복음서가 특별히 유대인들‘만’을 유일한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요한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일관성 없음을 지적한 신학자는 서동수만이 아니다. 김문현은 복음서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이 문제를 지적한다.⁸⁾ 그는 예수에 의해 치유를 받은 자이다. 그러나 논쟁은 이 치유가 안식일에 행해졌다 하여 유

5) 서동수, “요한복음, 반유대주의 신학인가?-요한복음 서문(1:1-18)에 비추어,” 『신약논단』 15/1 (2008), 90, 93.

6) 서동수, “요한복음, 반유대주의 신학인가?,” 93.

7) 지지하는 바와 같이 예수를 로마군대와 유대관원들에게 팔아 남긴 것도 예수의 제자인 가롯 유다였다. 예수가 가장 아끼던 그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였다.

대인에게 질타를 받는 부분에서 시작된다. 이 병자는 자신이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에 전혀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예수가 먼저 자신을 치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즉, 예수에게 자신이 받은 질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5장 15절에 이르면, 그는 태도를 전환하여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치유한 이가 예수라는 것을 알린다. 이 순간부터 복음서 기자는 이 병자의 증언을 예수가 지닌 치유의 능력을 증거 하는 것으로 묘사하기 시작한다.

김문현은 5장에 등장하는 병자의 예는 신학적인 해석의 문제를 남긴다고 말한다. 과연 우리는 주어진 글 안에서 복음서 기자가 그를 어떠한 인물로 규정하고 있는지 명료하게 읽을 수 있는가가 질문이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에게 감사하지 않고, 다만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였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그를 부정적인 인물로 간주한다고 여길 것인지, 또는 그가 결국 예수의 능력을 유대인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기에 긍정적인 인물로 읽어야 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38년 된 병자와 관련된 기록에는 모호함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⁹⁾ 만약, 38년 된 병자에 관한 해석이 모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요한복음서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 예컨대 유대인들에 관련된 해석 역시 그러할 수 있다. 나아가 김문현은 이러한 모호함을 확대하여, 요한복음서의 등장인물들과 관련된 기록들은 명료한 하나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보다는 각 인물이 처한 맥락에 의거하여 보다 역동적이고 다면적으로, 긍정과 부정을 넘은 모호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요한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의미를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한 신학자는 레이몬드 브라운(Raymond E. Brown, 1929-1998)이다. 그는 요한복음서에서 논의되는 유대인들에 관한 서술을 몇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¹⁰⁾ 그러니까 그 역시 ‘유대인들’의 정의에 관한한 유동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첫째, 로마인 등과 구분되는 민족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며(요 18: 31, 36, 38 등), 둘째, 유대지역을 지칭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갈릴리 등과는 구분되는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특정 지역을 의미한다는 뜻이다(요 4: 47, 54; 7:1, 3 등). 또한, 브라운은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유대관원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브라운은 복음서기자가 ‘대제사

8) 김문현, “요한복음에 나타난 유대인들, 그들은 누구인가? 5장, 6장, 그리고 8장을 중심으로 한 샘플분석,” 『신약논단』 15/2 (2011), 481-520.

9) 김문현, “요한복음에 나타난 유대인들, 그들은 누구인가?,” 499-500.

10) Raymond Brown, 『요한복음 개론』, 최홍진 번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210-228.

장들과 ‘유대인들’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정의 역시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여겼다.¹¹⁾

브라운 역시 ‘유대인들’의 의미가 고정된 하나의 그 무엇은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읽는 방법은 이 용어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 즉,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을 지칭한다는 해석에 브라운은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¹²⁾ 그러나 브라운은 이 정의 역시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요 11:19, 31, 33, 36; 12:9, 11).¹³⁾ 이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 글은 16세기의 개혁가 마르틴 루터로 초점을 이동시키고자 한다. 루터의 교리는 18세기 전반부 독일의 신학적 사고의 토양이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토양 안에서 바흐는 루터교 전례에 필요한 예배음악들, 예컨대 칸타타와 수난곡 등을 작곡하였다. 뒤따르는 논의를 통해 이 글은 이 토양이 유대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었는지 추적하고 분석해나가고자 한다.¹⁴⁾ 이를 위해 주목하고자하는 것은 루터가 남긴 그의 저작이다. 첫 번째 고려하고자 하는 루터의 문서는 1519년, 그러니까 95개 조항이 발표된 후 2년쯤이 지나 완성된 그의 글, “예수의 수난에 관한 묵상”(A Meditation on Christ's Passion)이다.¹⁵⁾ 1524년까지 총 24권에 이르는 인쇄본이 독일 주요 도시들에서 판매되었고, 1525년 출판된 루터의 『교회 설교집』(Church Postil)에도 이 문서는 포함되

11) 브라운은 ‘유대인들’이라는 용어 안에 권위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한다. Brown, 『요한복음 개론』, 218.

12) Raymond Brown, 『요한복음 개론』, 221.

13) 한편, 브라운은 또 다른 신학자인 볼트만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함의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요한기자는 ‘세상’을 유대인까지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Brown, 『요한복음 개론』, 226; 한편, 《요한수난곡》을 다루는 바흐담론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신학자 역시 브라운이다. Marissen, *Lutheranism, Anti-Judaism*, 38, 각주 2에서 메리슨은 자신의 저서가 브라운의 연구에 크게 빚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에릭 셰이프 역시 그러하다. 특별히 Eric Chafe, “The St. John Passion: theology and musical structure,” in *Bach Studies*, ed. Don O. Frankl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79를 참고하라.

14) 루터와 반유대주의를 다루는 국내 연구는 이성림, “루터와 반유대주의: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 『신학과 세계』 83 (2015), 70-99; 이성덕, “마르틴 루터의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입장,” 『한국교회사학회지』 18 (2006), 161-185를 참고하라.

15) <http://www.lutheranmissiology.org/Luther%20Meditate%20Passion%20of%20Christ.pdf>, 1-8 [2018년 4월 5일 접속].

었다. 이 문서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말해주는 대목일 것이다.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예수의 수난에 관한 묵상”은 수난의 신학적인 의미를 질문하고, 이것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고민하면서 그것의 답을 모색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 루터는 예수 수난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찰이 기독교인의 믿음과 삶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역설하고 있다. 루터는 수난을 피상적이고 감상적인 시선으로, 또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삶, 그리고 이로 인해 변화하는 개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루터는 이 문서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예수 수난에 대한 묵상을 유대인에게 분노를 발산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다른 이들의 탓으로 돌리는 습관을 가졌기에, 가롯 유다를 원망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악한 가롯 유다와 유대인들에 대한 묵상은 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성찰은 될 수 없다.¹⁶⁾

뒤따르는 논의에서 루터는 예수의 수난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고는 오류이며, 이러한 사고는 반성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글에서 루터가 전달하고자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는 예수의 수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자각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루터는 구약성서의 일부를 차용한다. 예컨대 이사야 53장, 8절,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 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를 제시하며, 예수의 수난이 상징적인 이스라엘인, 즉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하는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구약성서의 계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¹⁷⁾

또한, 루터는 예수의 수난이 ‘나’ 또는 ‘우리’ 모두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신학적 메시지를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을 인용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 구절에는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38절에서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누구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루터는 이 구절을 통해 구원의 대상이 특정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

16) <http://www.lutheranmissiology.org/Luther%20Meditate%20Passion%20of%20Christ.pdf>, 3 [2018년 4월 5일 접속].

17) <http://www.lutheranmissiology.org/Luther%20Meditate%20Passion%20of%20Christ.pdf>, 4 [2018년 4월 5일 접속].

다는 점,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점, 이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독교의 원칙이라는 점 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¹⁸⁾

유대인에 관한 루터의 가장 잘 알려진 문헌 중 하나는 아마도 1543년 작성된 “유대인에 관하여,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On the Jews and Their Lies)일 것이다.¹⁹⁾ 루터는 이 글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 대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연이어 제시되는 루터의 답은, 1519년 문서와는 달리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또는 그 이상으로 폭력적이다. 그는 유대인들을 예수와 그들(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불경을 행하며 저주하고 중상모략하며 비방하는 자들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끔찍한 악마와 같은 이들의 시너고그와 학교를 불살라야 하며, 그들의 집도 철저히 파괴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기도 책과 성서도 압수하여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²⁰⁾ 또한 루터는 유대인의 악행은 1400년 이상이나 지속된 것이라고도 지적하면서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에 대해 알고, 듣고, 배우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떠한 자비로 베풀 필요가 없다. 그는 요한복음서 5장 23절을 인용하면서 “이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서술하고 있다.²¹⁾

18) 루터의 신학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대한 그의 깊은 묵상, 회개, 깨달음, 그리고 통찰에서 시작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구원은 그의 선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루터의 ‘칭의’(The Doctrine of Justification)교리는 여기서 탄생한 것이다. 어찌 보면 루터는 사도행전 2장의 예를 통해 칭의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즉, 유대인들에게 그들 역시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의 신학을 선포하는 것이다. 칭의 등을 포함하는 루터 신학의 보다 상세한 논의는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trans. Robert C. Schultz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John Dillenberger, 『루터 저작선』, 이형기 번역(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Alister E. McGrath,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 Martin Luther's Theological Breakthrough* (Oxford: Basil Blackwell Ltd., 1994); Bernhard Lohse, 『루터 연구 입문』, 이형기 번역(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Lennart Pinomaa, 『루터 신학 입문: 승리의 믿음』, 엄진섭 번역(서울: 컨콜디아사, 2009) 등을 참고하라.

19) <http://www.ccrj.us/dialogika-resources/primary-texts-from-the-history-of-the-relationship/273-luther-1543>, 1-33 [2018년 4월 1일 접속].

20) 루터의 이와 같은 언어는 20세기에 등장한 반셈주의의 역사적인 근원이라 여겨지기도 한다. 그의 “유대인에 관하여,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가 히틀러와 그를 지지하는 정권의 이념을 기획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은 히틀러가 루터의 글을 오용한 것이라 여기고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어지겠지만, 루터의 관심은 유대인들의 개종에 놓여있던 것이지, 이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하고 이들을 파괴하는 것에 놓여있지 않다. Marissen, *Lutheranism, Anti-Judaism, and Bach's St. John Passion*, 24-27을 참고하라.

그러나, 루터는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을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여, 당신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사 그들을 자비 안에서 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지키소서”라고 쓰고 있다.²²⁾ 루터는 분명 이 글에서 유대인을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예수의 적대자들이라고 규정한다. 이들을 향한 루터의 언어폭력이 이 글 전반에 깔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가는 유대인들을 향한 저주로 자신의 글을 마무리 짓지 않았다. 그는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유대인들의 개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살펴보고자 하는 루터의 저작은 『탁상담화』(1566)이다. 루터 사후 출판된 이 문헌은 루터가 식탁에서 절친한 신학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탁상담화』는 루터 신학의 기본적인 교리가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을 뿐 아니라 개혁가의 개인적인 신앙,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지침 등이 진솔한 언어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²³⁾ ‘유대인들에 관하여’라는 소제목은 이 저서의 후반부에 등장한다. 여기서 루터는 유대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큰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니엘, 사무엘,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덧붙여 그는 기독교는 “원가지에 붙은 작은 가지”이며, “선지자들은 아브라함의 계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을 가리켜 아름다운 가지라 했고, 그 가지에서 그리스도가 친히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²⁴⁾

그러나 루터가 묘사하는 유대인상이 긍정적인 시각에서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그는 1400년 동안 그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은 이유는 이들이 완고하고, 오만하며, 교만하고, 허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이 글의 말미에서 루터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의 예를 전한다. 덧붙여 루터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역설하면서, 유대인의 개종을 요구하고 나선다.

그런데 『탁상담화』에 포함된 ‘유대인들에 관하여’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안에서 감지되는 로마의 기독교를 향한 루터의 신랄한 비판 때문이다. 루터는 이 글의 결론을 개종한 유대인의

21) <http://www.ccr.us/dialogika-resources/primary-texts-from-the-history-of-the-relationship/273-luther-1543,1-11> [2018년 4월 1일 접속].

22)

<http://www.ccr.us/dialogika-resources/primary-texts-from-the-history-of-the-relationship/273-luther-1543,33> [2018년 4월 1일 접속].

23) 마르틴 루터, 『탁상담화』, 이길상 번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24) 마르틴 루터, 『탁상담화』, 이길상 번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488-497을 참고하라.

고백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 고백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로마에서 자행되는 것과 같은 죄악을 참아주실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비행도 능히 견디고 참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미심장한 고백은 곧 루터 스스로의 고백임과 동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초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²⁵⁾

위에서 언급한 루터의 문서들이 암시하는 것은 유대인을 바라보는 루터의 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초기 루터의 저작에 해당하는 “예수의 수난에 관한 묵상”은 오히려 유대인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지만, 후기 저작인 “유대인에 관하여,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에서는 신랄한 비판을 넘어서 공포를 조장하는 폭력적인 태도와 언어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유대인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증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분명해 보이는 것은 루터가 유대인이라는 용어를 민족, 또는 인종을 차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까지 파괴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루터의 글에서 예수의 수난과 죽음의 책임이 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해석을 명료하게 읽어내는 것도 쉽지 않다. 오히려 루터는 그 죽음의 책임이 ‘나’ 또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설득하려는 듯하다. 요한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용어가 일관성이 없고, 다의적이었던 것처럼, 루터가 규정한 ‘유대인’ 역시 그러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요한복음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루터의 글이 반유대주의를 강화시키고 확산하였다는 해석도 재고의 여지를 남긴다.²⁶⁾

3. 《요한수난곡》과 균중합창 그리고 바흐

이 글은 《요한수난곡》에 등장하는 예수의 재판, 그리고 이 안에서 작동하는 균중합창으로 되 돌아 가려간다. 그리고 이 글이 아직 채 하지 못한 논의, 즉 18세기의 신학언어, 그리고 바흐의 음악언어는 과연 반유대주의를 표방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수난내러

25) 마르틴 루터, 『탁상담화』, 이길상 번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497.

26) 바흐는 이 글에서 언급한 루터의 저작들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이 문헌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알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말해주는 현존하는 사료가 없기 때문이다. 바흐가 소유하고 있었던 신학문헌 목록은 Hans T. David and Arthur Mendel, ed., *The New Bach Reader: A Life of Johann Sebastian Bach in Letters and Document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8), 253-254를 참고하라.

티브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 중 일부는 18b악장,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고”(Nicht diesen, sondern Barrabam)부터 25b악장,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창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Schreibe nicht: der Jüden König, sondern da β er gesaget habe: Ich bin der Jüden König)까지이다 (표 1 참조). 예수의 재판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바흐학자들은 이 일련의 악장들을 《요한수난곡》의 ‘핵심단락’(Herzstück)이라 부른다. 《요한수난곡》의 신학적인, 음악적인 중심축이라는 의미이다.²⁷⁾

그런데 핵심단락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 안에서 드러나는 음악의 반복이고 이것이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대칭이다. 이 대칭구조가 시작 되는 18b악장과 마무리되는 25b악장을 이 구조의 가장 외부에 존재하는 테두리들이라고 간주한다면, 이것의 중심에는 22악장,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감금되심”(Durch dein Gefängnis, Gottes Sohn)가 자리 잡고 있다. 22악장을 중심으로 앞뒤에 존재하는 악장들은 유사한 음악을 노래하며, 대칭구조를 만들어나간다. 이러한 대칭 구조는 곧 회문 구조이기도 하다.

수난내러티브 내부에서 감지되는 이 대칭적인 핵심단락은 단순히 바흐의 음악작품이 지니고 있는 구조체계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다그마르 호프만 악스트헬름(Dagmar Hoffmann-Axthelm) 등의 학자는 이 구조 안에서 반유대주의를 읽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핵심단락에서 발견되는 음악의 반복, 예컨대 21d 악장의 음악이 23d악장에서 반복되고, 21f악장의 음악이 23b악장에서 반복되는 것이 유대인의 무지, 완고, 그리고 독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주장한다.²⁸⁾ 나아가 21f와 23b 악장에 등장하는 푸가 역시 이러한 유대인들의 성격을 묘사하기에 적절하다고 믿는다.²⁹⁾ 푸가는 엄격한 작곡 규칙에 의거한 형식이고 이러한 엄격함, 또는 고집스러움은 유대인의 품성을 상징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핵심단락 안에서 발견되는 음악적 반복이, 그리고 바흐가 기대고 있는 푸가라는 작곡기법이 반유대주의를 함축하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 작품 안에서 발견되는 코랄 선율의 반복(3악장과 17악장이 그리고 14악장, 28악장, 32악장 등이 그러하다) 역시 같은 이치, 즉 반유대주의의 강화로 읽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푸가를 작곡하는 테크닉이 엄격하지만, 이것이 곧 반유대주의를 상징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은 아닌지 궁금하다.

27) 《요한수난곡》에서 발견되는 핵심단락은 독일의 바흐학자, 프리드리히 스펜트에 의해 1926년 제안된 것이며, 이후 대다수의 바흐학자들에 의해 수용되었다. Friedrich Smend, “Die Johannes-Passion von Bach. Auf ihren Bau untersucht,” *Bach-Jahrbuch* 23 (1026), 105-128.

28) Marissen, *Lutheranism, Anti-Judaism, and Bach's St. John Passion*, 30에서 재인용.

29) Marissen, *Lutheranism, Anti-Judaism, and Bach's St. John Passion*, 31.

더불어, 만약 《요한수난곡》의 핵심단락에서 발견되는 유대인의 합창 악장들이 반유대주의를 심화시키는 음악들이라면, 이들 사이사이에 침투해 있는 아리아와 코랄 악장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요한수난곡》의 해석은 유대인들이 노래하는 합창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이 노래하는 수난내러티브가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동력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들 가사에 대한 묵상과 성찰이 일어나는 아리아와 코랄 악장 역시 《요한수난곡》을 전진하게 하는 동력들이다. 자신들의 음악을 '설교'로 간주했던 바흐를 포함한 당대 교회음악작곡가들은 더더욱 그리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 글은 앞서 제시한 (표 1)로 거슬러 올라가, 수난곡의 핵심단락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22악장에 주목한다. 코랄 악장이다. 실제로 《요한수난곡》의 핵심구조는 이 코랄악장을 중심으로 자라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장조에서 제시되는 중심코랄,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감금되심”은 다음과 같은 가사로 구성되어 있다.

Durch dein Gefängnis, Gottes Sohn, muß uns die Freiheit kommen
Dein Kerker ist der Gnadenthron,
Die Freistatt aller Frommen;
Denn gingst du nicht die Knechtschaft ein
Müß unsre Knechtchaft ewig sein.

당신의 감금되심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주었고;
당신의 감옥은(당신이 감옥에 갇히심은) 신성한 왕좌가 되었으며,
거룩한 이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었도다;
당신이 이러한 고초를 겪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를 얻지 못했으리라

이 코랄은 핵심단락의 중심축이라는 구조적인 사실 이외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코랄 악장들, 예컨대 11악장, 14악장, 그리고 17악장 등의 가사는 선행하는 수난내러티브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11악장의 경우, 군인 중 한 명이 예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노래되는데, “구세주여,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한다는 말입니까”(Wer hat dich so geschlagen Mein Heil, und dich mit Plagen)라는 가사로 시작한다. 이 코랄의 가사는 선행 악장의 가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그것의 내용을 심화시켜나간다. 그런데 22악장의 가사는 이런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실제로 22악장은 복음서 19장 11절 후반부, 즉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찾지 못하여 그를 놓으려고 애썼다는 구절 후에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 코랄의 가사는 언뜻 보기에 선행하는 레치타티보와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이 코랄을 ‘누가’ 노래하는 지도 명확하지 않다. 물론, 이 코랄은 회중의, 또는 기독교인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하는 코랄 악장들은 노래하는 주체를 비교적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22악장은 그러하지 않다. 오히려 이 코랄악장은 현재 진행되는 시간과 공간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진행되는 내러티브를 관찰하면서 이에 대해 묵상하고 성찰하기를 그것의 청중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코랄은 공관복음서와 구분되는 요한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다. 첫째는 예수의 수난이 기독교인들에게 자유와 피난처가 되었다는 역설이다. 이는 인간이 예수의 수난을 통해 어떤 수혜를 받았느냐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은 예수가 감내했던 고난의 의미를 인간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초점을 맞추어 조망하는 태도이다.³⁰⁾ 둘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선언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서는 예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신학 주제로 다루고 있는 문헌이다. 《요한수난곡》은 이 문제에 대한 답,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코랄 악장을 통해 음악적으로 공포하고 있다.³¹⁾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선행하는 코랄의 가사와 선율이 16세기와 17세기 정통루터교 신학자들에 의해 창작된 것이었다면, 22악장은 전통적인 코랄의 가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악장은 1700년경 완성된 크리스티안 하인리히 포스텔(Christian Heinrich Postel, 1658-1705)의 『요한수난곡』에 포함되어 있는 아리아 가사를 차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악장은 코랄이 아니라 ‘유사코랄’ 정도로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³²⁾ 요약하면, 이 18세기 언어로 이루어진 유사코랄 악장이 핵심단락의 음악, 신학, 형식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

30) Eric Chafe, “The St. John Passion,” 81.

31) Paul J. Achtemeiser, Joel B. Green, and Marianne Meye Thompson, 『새로운 신약성서 개론』, 소기천, 윤철원, 이달 번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225; Moody Smith, 『요한복음 신학』, 최홍진 번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1), 128.

32) Robin Leaver, “The mature vocal works and their theological and liturgical context,”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Bach*, ed. John Bu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102.

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중심 코랄 악장 어디에도, 음악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반유대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4. 나가며

이 글은 바흐의 《요한수난곡》이 반유대주의를 함축하고 있는 음악작품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를 주장한 타루스킨은 이 작품의 가사가 그러한지, 음악이 그러한지, 또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빚어내는 대위가 그러한지의 문제에 대해 침묵했다. 타루스킨의 침묵에 반응하여 이 글은 이 작품의 가사로부터 시작하여, 음악과 가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복잡한 구조물을 살피는 것까지 논의를 확장시켰다. 이를 통해 아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글은 요한복음서의 수난내러티브에서 발견되는 ‘유대인들’의 의미를 복음서와 루터의 글, 그리고 이를 다루는 2차 문헌의 독해를 통해 추적해 나갔다. 이들 문서에서 ‘유대인들’이라는 용어는 다의적이고 유동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용어를 하나의 일관된 그 무엇을 함의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였다. ‘유대인들’의 의미를 조명하는 과정에서 이 글은 오히려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빌라도의 새로운 역할에 주목했고, 복음서와 루터의 글 해석이 안고 있는 일관성 없음과 모호성을 드러냈다.

또한, 요한복음서와 루터 저작의 독해를 통해 강력한 반유대주의와 조우하지는 못하였다. 비록 요한기자와 루터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적대적으로 묘사하기는 했지만, 이들의 글쓰기가 목표하는 것은 이들의 개종이었을 것이고, 이를 통한 이들의 구원이었을 것이다. 텍스트에서 발견한 결과물들의 검증을 위해 이 글은 바흐의 음악작품 내부로 들어갔다. 그런데 바흐의 음악작품 역시, 그의 텍스트가 그러했던 것처럼, 명료하게 반유대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보였다.

둘째, 이 글은 《요한수난곡》이 신학적인 텍스트로 읽혀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즉, 이 작품은 기독교 역사를 거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온 여러 층위의 신학적인 지향점과 언어 등이 켜켜이 쌓여, 서로가 서로를 풍성하게 하는 텍스트라는 것이다. 이 작품 안에는 1세기 경 기록된 요한복음서 기자, 루터, 그리고 18세기 독일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요한수난곡》의 의미를 공존하는 목소리들 안에서 찾아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셋째, 누군가가 이 음악작품 안에서 반유대주의를 들었다면, 음악학자들은 이것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탐구하며, 그 실체를 찾아나가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요한수난곡》은 많은 청중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와 같이 위로와 안식과 감동을 주는 음악 작품일 뿐 아니라 동시에 신학적인, 그리고 음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창작물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요한수난곡》의 독해와 감상은 편안함도 제공하지만, 충분히 불편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이 작품이 반유대주의를 강화하는지, 또는 그와 무관한지에 대한 '명료한 답'을 찾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인지가 작품이해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검색어

반셈주의(anti-Semitism), 반유대주의(anti-Judaism), 유대인(the Jews), 리처드 타루스킨(Richard Taruskin), 《요한수난곡》(John Passion), 마이클 메리슨(Michael Marissen), 수난내러티브(passion narrative), 빌라도(Pilate), 요한복음서(the Gospel of John),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균중합창(turba chorus), 코랄(chorale), 레이몬드 브라운(Raymond Brown), 핵심구조(Herzstück), 다그마르 호프만 악스트헬름(Dagmar Hoffmann-Axthelm), 대칭구조(symmetrical structure)

참고문헌

- 김문현. “요한복음에 나타난 유대인들, 그들은 누구인가? = 5장, 6장, 그리고 8장을 중심으로 한 샘플 분석.” 『신약논단』 15/2 (2011): 481-520.
- 김용환. “바그너의 반유대주의 I: 원인과 배경.” 『서양음악학』 39 (2014): 45-81.
- 서동수. “요한복음, 반유대주의 신학인가?-요한복음 서문(1:1-18)에 비추어.” 『신약논단』 15/1 (2008): 69-103.
- 이가영. “바흐의 《요한수난곡》 입문: 요한의 기록, 루터의 신학, 그리고 바흐의 해석.” 『음악이론 연구』 22/1 (2014): 41-64.
- 이성덕. “마르틴 루터의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입장.” 『한국교회사학회지』 18 (2006): 161-185.
- 이성림. “루터와 반유대주의: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 『신학과 세계』 83 (2015): 70-99.
- Althaus, Paul.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Translated by Robert C. Schultz.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 Brown, Raymond. 『요한복음 개론』. 최홍진 번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 Butt, John. *Bach's Dialogue with Modernity: Perspectives on the Pass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Chafe, Eric. “The St. John Passion: theology and musical structure.” In *Bach Studies*. Edited by Don O. Franklin, 75-1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_____. *J. S. Bach's Johannine Theology: The St. John Passion and the Cantatas for Spring 172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David, Hans T. and Arthur Mendel, ed. *The New Bach Reader: A Life of Johann Sebastian Bach in Letters and Document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8.
- Dillenberger, John. 『루터 저작선』. 이형기 번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 Franklin, Don O. “The Libretto of Bach's John Passion and the Doctrine of Reconciliation: An Historical Perspective.” In *Das Blut Jesu und die Lehre von der Versöhnung im Werk Johann Sebastian Bachs*. Edited by Albert A. Clement,

- 179-203. Amsterdam: North-Holland, 1995.
- Dürr, Alfred. *Johann Sebastian Bach's St. John Passion: Genesis, Transmission, and Mea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Leaver, Robin. "The mature vocal works and their theological and liturgical context."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Bach*. Edited by John Butt, 86-12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Lohse, Bernhard. 『루터 연구 입문』. 이형기 번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 Luther, Martin. 『탁상담화』. 이길상 번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 Marissen, Michael. *Lutheranism, Anti-Judaism, and Bach's St. John Pas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_____. *Bach & G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McGrath, Alister E.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 Martin Luther's Theological Breakthrough*. Oxford: Basil Blackwell Ltd., 1994.
- Melamed, Daniel R. *Hearing Bach's Pass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Pinomaa, Lennart. 『루터 신학 입문: 승리의 믿음』. 엄진섭 번역. 서울: 키클디아사, 2009.
- Smend, Friedrich. "Die Johannes-Passion von Bach. Auf ihren Bau untersucht." *Bach-Jahrbuch* 23 (1026): 105-128.
- Smith, Moody. 『요한복음 신학』. 최홍진 번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1.
- Taruskin, Richard. *Text & Act: Essays on Music and Perform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인터넷 자료

- <http://www.lutheranmissiology.org/Luther%20Meditate%20Passion%20of%20Christ.pdf>,
1-8. 2018년 4월 5일 접속.
- <http://www.ccr.us/dialogika-resources/primary-texts-from-the-history-of-the-relationship/273-luther-1543>, 1-33. 2018년 4월 1일 접속

Anti-Judaism and the Turba Choruses in John Passion: Re-reading John and Luther

Kayoung Lee

This study explores the notion, anti-Judaism and its relation to J. S. Bach's John Passion. In order to examine if the notion is portrayed in the composition, this study reviews the passion narrative found John's Gospel, in particular, the expression of the Jews and its use and function within the Gospel. Furthermore, this study investigates Luther's writings to see his definition of the Jews. After re-reading those theological literatures, I will point out that the meaning of the Jews found in those writings can be said to be ambiguous and equivocal, arguing that it is less likely that the John's Gospel and Luther's writings capture the notion of anti-Judaism, emphasizing that Bach's composition does not seem to embody the notion in his composition either.

반유대주의와 《요한수난곡》의 군중합창 - 요한과 루터를 중심으로 -

이가영

이 글은 반유대주의와 《요한수난곡》의 관계를 이 음악작품에 등장하는 군중합창의 역할과 신학적, 음악적 의미를 통해 조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이 작품의 가사가 되는 수난내러티브에 주목하여, 이 안에서 요한복음서의 기저는 ‘유대인들’이라는 용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였는지 논의한다. 또한,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확장시켜, 개혁가 루터는 ‘유대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술하였는지, 또는 이해하였는지 살핀다. 요한과 루터의 독해를 통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유동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그리고 이것의 신학적 해석이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해 나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글은 바흐의 음악작품, 《요한수난곡》의 핵심구조를 살피고, 이 안에서 군중합창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함으로 이 작품과 반유대주의와의 관계를 조명해나간다.

논문투고일자: 2018년 5월 2일

심사일자: 2018년 5월 19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5월 19일

